

전문가 교칭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



김재은
(사)산업정책연구원 원장

질문 1

윤리 경영을 실천함에 있어서 모니터링의 역할은 무엇이며,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진단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모든 기업의 윤리경영 정책과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윤리

적 기업문화 조성'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윤리적 의사결정과 사건·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사전에 예측 하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우리 회사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게 윤리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가, 혹은 비윤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이를 얼마나 성숙하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알아보는 윤리경영 제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기관 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평가모델을 활용하거나 제3자 평가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내 윤리경영 선두기업의 경우 독자 개발한 윤리경영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윤리경영 취약점을 발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윤리수준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니터링 제도는 비전, 전략, 조직, 인사제도 등 전반적 회사기능별로 윤리경영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윤리적 기업문화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동시에 회사의 윤리경영 수준이 '절대적 우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 제3자에서 측정하는 윤리경영

평가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속가능경영 확산사업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SM) 등이 대표적 외부평가제도입니다. 제3자 평가는 우리 회사의 수준을 정기적으로 동종업계 혹은 경쟁사와 비교해 봄으로써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다양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모니터링 외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노력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지요.

윤리경영 제도를 운영한다고 모든 윤리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윤리적 자생력 혹은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의 통합작업이 중요합니다. 즉, 회사의 가치와 일하는 방식이 윤리기준과 연동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기업이 운영 중인 윤리경영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에 적합한 최신 제도인지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낙후된 윤리경영 시스템은 임직원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그릇된 인식만 확산할 뿐입니다.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 기술, 정보보호, 글로벌 반부패 규정 등 변화요소를 고려하여 윤리경영 제도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정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윤리적 기준이 회사의 모든 제도와 기능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비전, 전략, 조직, 인사제도 등 사내제도 전반에서 비윤리적 행동이 발생가능한 취약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윤리경영 제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향 & 소식

:: 국 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하도급 업체 보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변경 보고 의무 규정과 신규 건설업자의 윤리교육 이행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된 법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발주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6개월 이하의 신규 건설업자는 의무적으로 8시간의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처: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460>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발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등이 10월 20일 발표한 '2015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 조사 결과, 총 115개 공공기관 중 5개 기업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공기업 I(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부문에는 한국공항공사가 752.03점(만점 1000점)으로 1등을 수상하였고, '공기업 II(특정 분야 산업에 대한 진흥)' 부문에는 한국동서발전(707.30점)이 1등을 수상했다. 평가지표는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준인 GRI 지표들로 구성되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가이드라인(ISO 26000)'이 반영되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92682>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5 시상식 개최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김철수 회장)이 10월 1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5'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사회적 책임대상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품질 대상은 세방전지(주) △최고경영자대상은 흥진HJC 흥완기 회장 △경영품질부문대상은 KD파워, 동아정밀공업(주), 삼화콘덴서, 마스터자동차(주) △한국품질재단 글로벌시스템부문대상은 오맥, 대광소결금속, 유양산전, 농업법인 새들만이 각각 수상했다.

출처: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47111>

:: 해 외

영국의 2015 현대판 노예법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 대략 2억 명의 사람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고, 매년 1조 5억 원의 불법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표하였다. 특히, 투명하지 않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근절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영국에서 2015년 현대판 노예법(2015 Modern Slavery Act)이 발효되었다. 영국의 현대판 노예 법은 위반 시 최고 형량을 14년에서 종신형으로 증가시켰으며, 범법자의 재산을 철저히 몰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출처: Ethical Corporation, Sep, 2015, <http://www.apil.or.kr/1728>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 세계 의사회 윤리 규정 채택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0월 14일~17일 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종 채택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의사의 방송 출연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였으며 이를 발의해 준 의협의 노력을 높이 사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189843>

UN·세계은행, 무이자방식 세계난민기금 조성한다

UN과 세계은행이 심각해지는 난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무이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금을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최근의 난민 사태에 대해 "세계은행이 UN 및 다른 주요 국제금융기관과 긴밀한 파트너로서 주류 역할을 이행하고 분쟁 국가들에 대해 활발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두 기관은 우선 이슬람개발은행이 무이자로 운용하는 이슬람채권 발행 등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된 재원은 난민사태에 대처하는 국가들에 초저금리 또는 무이자 방식으로 대출된다.



출처: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9193>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제6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UN반부패협약*과 관련, 당사국간 이행 현황 공유와 점검체계 개선을 위해 2015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6차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주관: UN마약범죄사무소, 러시아 정부). 이번 총회에서는 177개 당사국 및 비비준국 대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약 1,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성보)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한국의 주요 협약 이행 진전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 UN반부패협약('03.10월): 산재해 있는 반부패 국제협약을 UN총회가 통합하여 만든 최초의 국제규범 (한국은 '08.2월 비준)

글로벌 리포트

중국의 윤리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

중국은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윤리성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멜라닌 분유 파동(2008), 다국적 제약기업 GSK 부패 스캔들(2013, 영국 제약회사가 가짜 계약서와 영수증으로 현금을 만들어 공산당 관리와 의사에게 뇌물 제공), '자살 공장'이라 불리는 폭스콘 중국 공장 노동 실태(2010) 등 일부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명성이 크게 실추되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은 윤리경영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2010년 중국 정부는 윤리경영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중국 교육부와 대학을 중심으로 '청렴 커리큘럼'과 '청렴 약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한 기업 문화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중국 대학의 윤리경영 교육 및 워크숍

중국은 '청렴 커리큘럼'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을 중심으로 윤리경영을 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 문화에 깊숙이 자리한 관시(이민족의 침입이 많던 중국 문화의 특성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생긴 관습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것을 뜻함)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렴한 사회, 기업문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3개 대학교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윤리경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출범한 칭화대학교 CIEN에서 진행하는 'Integrity Actions China project'가 대표적이다.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을 약속하는 서약식인 '청렴 약속'은 중국 정부가 지정한 대학교에서 워크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의 TOP 5 건설사,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위원회 등이 참여하였다.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렴 커리큘럼'과 '청렴 약속'은 교육 차원의 윤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세계 베스트 청렴 사례를 중국 사회 시스템에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정부, 부패와의 전쟁 선포!

중국 정부는 2010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52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윤리 법안을 제정하였다. 또한, '반부패 가이드선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22개 대학과 전 세계 19,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마련하여 부패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국가 차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중국 시장의 개방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의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PRC(People's Republic of China) 범죄 법'을 제정하여 다국적 기업인과 외국인 경영진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PRC 범죄 법은 영국 'Bribery Act'와 미국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벤치마킹하여 중국 특유의 산업 시스템(경제 개혁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였지만 공산당 집권 중심의 정부 체계가 공존하는 것에 적합하도록 마련한 법이다).



CSR Action Plan

중국은 2006년도에 기업 CSR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회사법에 CSR을 명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C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중국 CSR의 특징은 외국 기업 CSR에 대한 기대치가 중국 기업보다 높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2010년 중국사회과학원이 1,000명의 베이징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중국인의 47%가 외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20%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외국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CSR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업종별 윤리경영 사례

에너지 업계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윤리경영 이슈는 발전 연료 사용 및 발전소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이슈,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이슈, 다수의 협력업체와 협업이 필요한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협력업체와의 비윤리적인 거래' 이슈 등이 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해졌고, '산업 공생'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이슈1 지속가능한 산업공생

에너지 산업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1차 에너지 자원을 탐사·개발한 후 이를 2차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통칭한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설계, 조달, 건설, 발전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술집약적이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협력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기술과 부품, 수많은 인력이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 심사와 임직원의 청렴 의식이 중요하다.

사례_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A기업은 '찾아가는 구매상담회'라는 제도를 통해 기술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또한, '금융지원 MOU'를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입찰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었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절하하여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배려하였다. 이 기업은 또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 적극 이전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하였고 '상생 협의체'를 운영하여 불법 하도급 근절을 달성하였다.

☞ 4면에서 계속됩니다.

윤리경영 스테디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과 실천 툴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기업의 부정부패 감시를 통해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윤리경영 정책의 시행과정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통해 부패방지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부패방지 노력을 독려할 수 있다. 윤리경영 모니터링은 윤리경영 방침과 조직 및 시스템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결과를 근거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자가진단, 활동실적평가, 상벌제도'가 있다.

윤리경영 모니터링 방법

- **자가진단** : 자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고 기업 내 윤리경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임직원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다. 기업의 현재 위치 및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윤리경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활동실적평가** : 기업에서는 윤리경영 활동실적에 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기업의 성과관리와 통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제도 등 인프라 구축현황과 세부 실행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및 운영 성과 등으로 구성되며 윤리경영 실적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보상이 뒷받침된다.
- **상벌제도** : 윤리경영 정착과 기업의 위험관리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해서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이나 업무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대한 보상제도는 활발히 실행하고 있으나, 불법이나 비도덕적 행동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어 '신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윤리경영 모니터링을 위한 툴

Business Integrity Toolkit(국제투명성기구)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개발한 Business Integrity Toolkit은 효과적인 윤리경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킷으로 윤리경영 전 과정을 파악하여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Business Integrity Toolkit 6단계는 [약속->평가->계획->실행->모니터링->보고] 순서대로 진행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 인증 프레임워크'와 '자가 평가 툴'을 제공하며, 기업에서 시행하는 반부패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Business Integrity Monitoring Toolkit(국제투명성기구)

● 기업 반부패 프로그램 인증 프레임워크

: 기업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윤리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인증할 독립적인 보증을 위해 ISAE 3000(국제 회계 보증), Principle for Counting Bribery(부패 순위), PACI Principles(이해관계자 부패지수) 등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 자가 평가 툴(SET: The Self-Evaluation Tool)

: the Business Principles for Counting Bribery(2009)에 의거한 260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임직원의 반부패 인식을 평가함

FKI-BEX (Business Ethics Index, 전경련)

이론적인 지표보다 실질적인 지표의 필요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개발한 툴이다. 2006년 전경련에서 발간한 '글로벌 윤리경영 프레임워크'와 국내외 윤리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7대 진단 영역으로 세분화 하였고, 윤리경영 시스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윤리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면에서 이어집니다.

이슈2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

우리나라의 2014년 산업 재해율은 0.53%로 전년 동기 대비 0.06% 감소한 비율이지만 업종 구분에서 에너지 산업이 포함된 건설업의 재해 사망률이 4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사고 재해자가 전년 대비 43명 증가하였다. 한편 재난·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에너지 산업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전경영을 위한 사후 대처도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 산업의 선진 기업은 구체적인 안전경영 목표를 설정한 후 현장조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안전성 유지를 중점으로 한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사례 21세기 최악의 재앙,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지방 태평양 지진으로 인해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함께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한 21세기 가장 끔찍한 참사로 기록되며 그 피해는 현재 진행 중이다. 사고의 원인은 지진 해일로 인한 원전 손상으로 냉각수 유실로 원자로 내부가 급격히 과열되어 보호막이 녹아내린 멜팅다운(노심용해) 현상 때문이다. 제1원자력 1호기의 고장으로 2호기의 격납용기(원자로가 들어 있는 차폐 공간으로 외부 충격으로부터 원자로를 보호하고 유사시 방사능 물질을 가두는 공간)가 손상을 입어 견딜 수 없는 재난으로 이어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자로의 냉각시스템을 멈춘 직후 원전 폐기를 감수하고 바닷물을 초기에 투입해야하는 안전 방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대형 참사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수적인 내진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안전 경영의 부재로 대표되는 최악의 사례이다.

이슈3 정부와 기업의 환경적 노력

'에너지 기본법'을 시작으로 정부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로의 전환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환경경영 실천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 강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2012년 기준)의 60.6%를 차지하는 화력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이유는 타 발전 방식보다 간편하고 안전한 운용 방식이라는 장점 뒤에 대기 오염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화력 발전소는 설비와 시스템, 운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친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 환경감시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경영

2014년 기후변화경쟁력 우수기업인 E 발전소는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며 녹색 에너지를 위해 4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이다. E 기업은 대기, 수질, 자원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 중 환경감시 시스템이 독보적이다. Clean SYS라는 첨단 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사내 환경감시시스템과 연동하여 굴뚝배출정보, 수질관리 및 주변 환경 현황을 24시간 상시 감시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수집 저장하고 관리하여 최소한의 대기오염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비산먼지와 소음감시를 위해 5분 감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2030

UN SDGs 2030 개요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인 SDGs(Sustainability Development Goals) 2030은 2년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채택된 17개국의 공통적인 지향 의제와 169개의 이행 목표로 구성된 아젠다이며 향후 1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환경, 사람과 관련된 17개의 의제를 명시하고 있다.

UN SDGs 2030 17개 의제는 다음의 3가지 분류 체계로 정리할 수 있다. ▲(경제성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식량 문제, 깨끗한 식수 확보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며, 8가지(1,2,3,4,6,7,8,9번) 목표로 구성되어 있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평등 지향성) 평화로운 지구를 강조하며,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타파하는 목표는 3가지(5,10,16번)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체계)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정책과 행동 방침에 대한 안건은 4가지(13,14,15,17번)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며 SDGs 2030 의제에서 새로 추가된 목표이기도 하다.

UN SDGs 2030 17가지 목표



UN SDGs 2030과 MDGs 2015의 비교 분석

구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개도국 중심이지만 선진국도 포함
분야	빈곤, 의료, 교육 등 사회 분야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
참여	정부 중심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중심

*자료: 외교부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의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친 영향

UN이 SDGs 2030 의제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 빠른 움직임이 돋보인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기업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SDGs 2030이 강조한 세계적인 파트너십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계약이 있을 경우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여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글로벌콤팩트의 보편적 원칙을 존중하면서 기업 시스템에 최적화된 지속가능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GRI 가이드라인과 같이 신뢰성 있는 체계를 통해 끊임없이 기업 내부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슈별 플랫폼과 산업별 이니셔티브에 더 깊이 참여하여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① 빈곤근절 ②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③ 전 인류의 건강한 생활과 웰빙 보장 ④ 교육의 질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촉진 ⑤ 양성 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강화 ⑥ 식수 확보와 위생관리 보장 ⑦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⑧ 모두를 위한 일자리 촉진 ⑨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 필요성 충족 ⑩ 불평등 감소 ⑪ 지속가능한 도시와 생활환경 조성 ⑫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⑬ 기후변화 대응 ⑭ 해양 생태계 보존 ⑮ 육상 생태계 보존 평화롭고 통합적인 사회 달성 지구적 규범과 파트너십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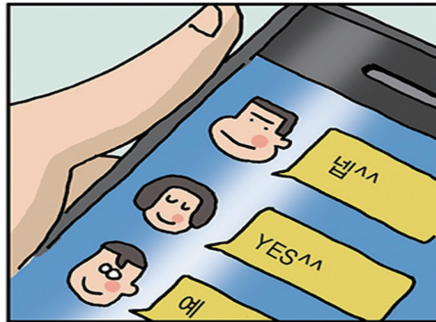
One Point Lesson

Q 요즘 언론에서 청렴도 평가에 대한 소식이 종종 들리는데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A 청렴도 평가는 부패를 하나의 사회현상이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부패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우선 개선 영역과 취약업무를 파악하고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청렴도 제고 활동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렴도 평가는 조사 대상을 구체화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기관 단위의 체계적인 부패진단 시스템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Yes 준비! Ok 윤리!

선(善)플! 선(先)플!



자료제공 : 교보생명

맛 취 보 세 요

다음 중 윤리경영 모니터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 1)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교육
- 2) 활동실적 평가
- 3) 자가진단
- 4) 상벌제도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 (커피 2잔)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정답 : 1번, OHSAS 18001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성함, 휴대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처)를 보내주세요(23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이정민님, 황미영님, 최금순님, 마영희님, 김경단님입니다.

※ 보내주시는 연락처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